

절대평가 4개 과목 혹은 전 과목으로 확대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등급제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4개 과목 또는 전 과목(7개)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수능 절대평가 4과목 전 과목 등 수능개편시안 2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편위원회 구성해 수능과목과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편은 고등학교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

초 소양을 지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9월 확정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개편시안 1안은 영어, 한국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능 절대평가를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고,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 제2외국어·한문 등 수능 전 과목(7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에 대한 평가는 한국사와 영어처럼 원점수에 따라 총 9개 등급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정해야 하지만, 9등급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절대평가 등급 간 점수차도 후속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과거 문과생과 이과생이 별도로 이수했지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무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에 절대평가를 적용했다.

현 고3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 뿐 아니라 영어영역도 절대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달 31일 수능개편안을 발표할 때까지 수능개편시안 2개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은 수능체제 변화를 최소화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능 변별력을 유지해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쉬운 반면,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수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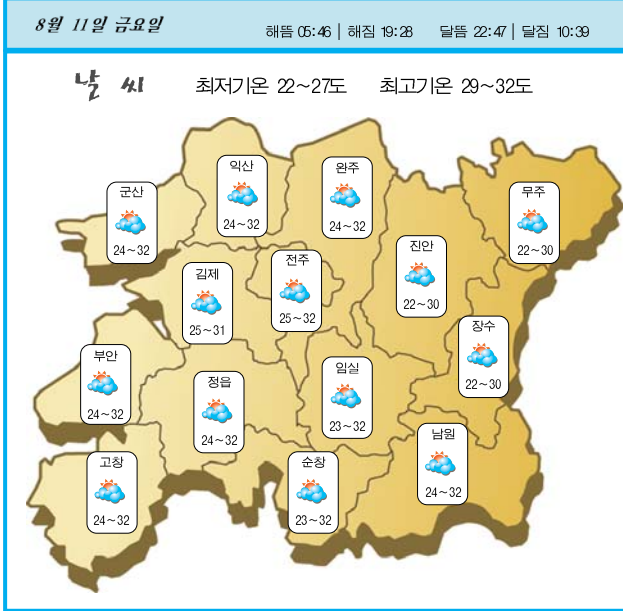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전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의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돼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경쟁 과열로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섞여 나오고 있다.

이번 수능개편시안에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 외에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을 축소·폐지(1안) 또는 연계율을 유지하며 연계 방식을 개선(2안)하는 2개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을 70%로 유지했는데, 교과서 대신 EBS 교재 문제풀이 수업, EBS 교재 영어지문 해설본 암기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거쳐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보 위해 세입부서 연계협력 강화

전주시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세정과는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8월과 9월 이틀간 완산·덕진구청 세무과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주시청-완산구·덕진구청' 삼각관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청과 구청, 구청과 구청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각종 세정업무를 차질 없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변호관 영치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

는 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는 주민세와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시청과 구청간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더 상호 협력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삼성꿈장학생 30명 대상 갯벌해양생태체험 진행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삼성꿈장학생재단과 함께 클 아이들 장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2일 갯벌해양생태체험을 진행한다.

오전 학습에서는 서천 조류생태전사관 관람 및 갯벌에 대한 이론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선소리갯벌체험장 일대에서 현장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전의 학습활동에서는 지형·지질에 따라 달라지는 갯벌과 그곳에 다양하게 사는 해양생물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현장체험에서는 학습활동을 통해 익힌 정보를 바탕으로 지형과 지질에 따라 달라지는 갯벌의 모습과 갯벌에서 생존하는 생물을 채집하고 직접 관찰·확인하는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유수창 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준비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갯벌의 특성을 이해하고 갯벌 생물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학생들이 해양생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학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꿈장학생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서천군 명예예수자(내인) 자연환경해설사, 삼성꿈 장학재단 장학생 멘토 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흥미로운 강의와 유익한 체험활동으로 꾸며져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 제7공수특전여단과 군 창업 훈련 프로그램 진행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기여... 3D프린팅의 이해·드론 활용 항공촬영 기초과정 등 이수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군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은 2017년도 1차 훈련 프로그램을 제7공수특전여단과 함께 30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성장산업인 3D프린팅 및 드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창의력 개발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창업을 준비할 경우 효과적인 창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1차 교육에는 총 30명의 장병이 참여한 가운데 3D프린팅의 이해와 아두이노 드론 제작 및 코딩, 드론의 비행원리 전파법, 항공법의 이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의 기초과정 등을 이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팀워크를 통해 자기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략적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면서 3D프린팅과 드론을 접목한 디자인과 렌더링을 통한 출력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으며, 활용용 드론의 융합 교육으로 장병들의



만발한 해바라기 진안군 상전면 금지배널실 양지마을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은 "전역 장병에 대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들이 전역 후 창업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2차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문화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